

간행물 납본의무, 중판은 해당안돼

납본제도 개선... 납본기한도 '출판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



지난 8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서 납본범위의 축소와 납본기간의 완화 등 그동안 납본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던 것들이 개선되게 됐다. 사진은 출판협회의 납본실.

문화부가 5월 8일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오던 간행물 납본제도의 개선을 위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함으로써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출판협회에서도 이달부터 중판도서는 납본받지 않고 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5조의 "납본서에 해당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그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까지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중 "납본서"를 "간행물 납본서"로 서식 변경하고, 납본기한을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까지'에서 '출판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완화하며, "중판"을 '개정판(전정판 포함)'으로 하여

납본범위를 축소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이 개정령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납본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촉박한 납본기일과 같은 내용의 책을 중복납본하게 된다는 비합리성 극복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체재나 내용의 변화없이 인쇄만 거듭한 경우에도 납본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생기던 출판사의 부담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가셔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납본상황에 근거한 이제까지의 각종 출판통계도 그 방법과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납본제도에 대한 출판사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으며, 한편으론 납본의 '의무'를 더 명백히 법제화하여 납본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출협회장단, 교보측과 간담회

교보문고의 휴·폐업설과 관련해, 교보문고 김병수사장과 윤양현 상무이사가 지난 5월 2일 출협 회장단과 만나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간담회에서

교보측은, "휴장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장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휴점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구체적 일정이 잡히면 출판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판계측의 권병일 회장과 김낙준·나춘호 부회장, 정진숙 출판금고이사장은 "휴장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매자유지제' 실시방안 논의

지난 8일 출판문화협회와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대표들은, 공정거래

위원회 강희복국장(독점관리국)을 방문, '출판물재판매가격 유지제도' 실시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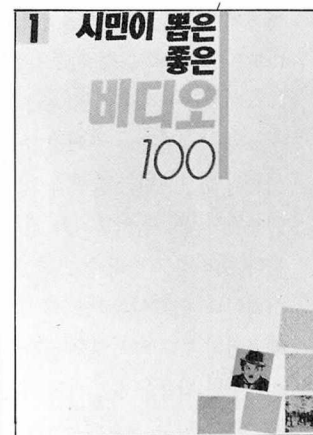
지난해 연금매장등의 할인판매로 집단휴업사태까지 벌어진 뒤, 정가 판매제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련과 출협이 체결한 출판물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보다 확고히 한다는 입장에서 이뤄진 이날 모임에서는, 출판계와 서적상계, 학계로 구성된 준수위원회(11명)를 발족시켜 정가 판매를 불이행하는 출판사나 서점에 대해 제재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방안강구를 하기로 했다.

해설 곁들인 우수비디오프로추천목록

서울 YMCA 「시민이 뽑은 좋은 비디오 100」 펴내

서울 YMCA에서 마련한 '건전 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그동안 발표해왔던 우수 비디오오그램 100선을 책으로 엮어 펴냈다. 교수·언론인 등 7인의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준한)를 구성, 작년 1월부터 매달 5편 내외의 '좋은 비디오'를 가려뽑아 시청자들에게 발표해왔는데 이번에 그 1년동안(1991년 3월까지)의 결과를 모은 것.

모두 10가지 주제로 나눠 실린 100편의 비디오오그램에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선정위원들의 간략한 소개와 평을 실어 도움이 되게 했다. 남미지역 인권운동과 정치제도와와의 갈등투쟁을 그린 「로메로」(감독 존 듀이간)과 핵문제를 다룬 「그날 이후」(감독 니콜라스 메이어) 등 '세계관의 확대'라는 주제 외에 어린이·여성·사랑·전쟁 등 주제별로 작품들을 소개했다. 선정위원회 명



단은 다음과 같다. 강현두(서울대 신문학 교수) 오세완(신부) 이영자(성심여대 사회학 교수) 이준한(서울신문 논설위원) 전대련(서울 YMCA 총무) 정용탁(한양대 영화학 교수).

중앙도서관, '가족열람실' 개설

온가족이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

"아이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또우치 아이 글 / 마쓰오카 다스히데 그림 / 김창원 옮김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만 할 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지도 읽는 법, 요리법, 응급 치료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신출판사 2도 인쇄 / 340쪽 / 값 4,800원
전화 720-5990 · 1



1991년 8월 8일 설악산에서 지구촌 보이 스카우트의 대축제인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 야외 생활을 통한 몸과 마음의 단련... 여기에 잼버리를 더욱 신나게 해줄 우리들의 친구 '모험도감' 야외생활 길잡이 '모험도감'은 대 자연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이십니다.

주요내용

- | | |
|--|--|
| <p>걷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발을 고른다 배낭 꾸리기 지도 읽기 | <p>만들며 논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그릇 만들기 눈 오는 날의 놀이 도구를 손에 익히자 |
| <p>먹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짓기 가져갈 취사도구 먹을 수 있는 산나물 | <p>동물과 식물을 만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까운 곳의 나무 관찰 동물의 발자국 독초와 독버섯 |
| <p>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텐트 치는 법 필요한 조영 기구 야외 화장실 | <p>위험에 대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을 잃었을 때 머리 배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약초 |

을 읽을 수 있는 '가족열람실'이 가정의 달인 이달 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어른과 함께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올바른 독서생활과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가족열람실은 어른을 포함한 두사람 이상의 가족에 한해 오전 9시부터 문을 연다. 80평 크기의 열람실에 성인과 아동의 체계를 고려해 준비한 60석의 좌석과, 어린이와 청소년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정보자료 1만여종을 비치하고 있다.

도유동, 출판영업인 강좌 개강

도서유통개선회의(회장 이호림)는 지난 5월 8일, 출판사와 서점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출판영업인들을 위한 전문강좌인 '출판영업인 강좌'의 개강식을 가졌다.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하게 될 이번 제1기 강좌는, 기획·편집·제작·디자인·저작권·전산시스템·광고 등 전반적인 출판관련분야와 외국의 도서유통현황, 국내출판유통개선행향을 비롯한 출판계 영업인들에게 알맞는 20개 강좌를 하게 된다.

이번 강좌에는 고려원, 거름 등 30여 출판사의 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윤석균(웅진출판사) 허창성(평화출판사) 윤형두(범우사) 씨 등 출판사대표들과 이두영(출협사무국장) 김희락(출판연구소 사무국장) 정병규(북디자인) 최성균(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간사) 씨 등이 강사로 나와 강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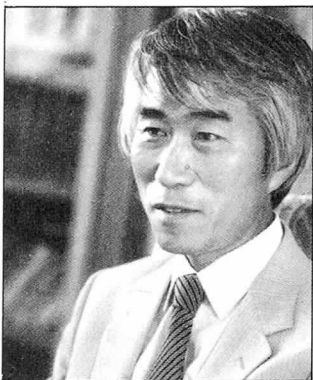
도유동의 이호림회장은 "출판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영업인들의 자질향상과 이를 통한 출판계의

성숙을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일선 서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계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우사, '범우출판장학회' 설립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도서출판 범우사(대표 윤형두)가 출판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출연, '범우출판장학회'를 설립했다.

출판학 전공자들에 한해 지급되는 국내 처음의 장학금은 출판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광주대학을 비롯한 전문대 4곳과 경희대 중앙대



윤형두씨

동국대 등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전공학생들이 수혜대상. 첫 시상식은 오는 9월 범우사 창립25주년 기념식과 같이 할 예정이며, 인원은 약 10명 정도.

'범우출판장학회' 이사장은 서지학자 안준근씨, 이사는 윤형두사장 한승헌변호사 이정춘교수(중앙대) 등이다.

뉴욕서 미서적상협회 도서전

제44회 미국서적상협회 도서전시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4일간 뉴욕에서 열린다.

미국서적상협회가 주관하는 이 도서전에 우리 출판계에서는 김봉모(대학당 대표) 최해영(웅진출판사) 조일환(고려원 전무이사) 씨 등 9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이 세번째 참가이다.

잡지대학 제13기 수강생 모집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수달)가 편집·취재기자 양성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개설해 온 '잡지대학' 제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레이아웃기법 아트디렉션 촬영 색채 제판 인쇄 등의 교과과정으로 2개월의 단기교육을 마친 뒤, 3개월간 회원사인 잡지사에 수습기자로 파견시켜 현장실무를 습득하게 하는 특징을 지닌 이 강좌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모집 대상으로 하며 수료후 취업을 알선한다. 수강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로 접수마감은 5월15일. 문의전화 735~9694.

김윤식교수 '팔봉비평상' 수상

제2회 팔봉비평문학상에 「작가와 내면풍경」 「우리 소설을 위한 변명」을 펴낸 김윤식씨(서울대 국문과교



김윤식교수

수)가 선정됐다.

국문학자로, 또한 현장비평가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윤식씨는 근대문인연구와 남·월북문인연구에 일가를 이루어온 비평가로, 이번 수상저서에서는 기성작가로부터 신인작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문학현황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논쟁을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추적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는 모두 35권의 평론집이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심사위원은 정명환 유종호 김치수 염무웅 씨가 맡았는데, 학술적인 연구서와 외국문학이론의 소개서는 가급적 배제하고 실천비평에 역점을 둔 평론집에 비중을 두어 선정했다.

최동호교수는 '소천상' 받아

제3회 소천비평문학상 수상자로 시인이자 평론가인 崔東鎬(고려대 국문과교수)가 선정됐다.

심사를 맡았던 유종호 김치수씨는 수상작인 「정현중 시와 노장적

불교적 상상」에 대해 "한 시인의 반생애에 걸친 시세계의 변화과정을 설득력있게 추적하고 외형상 서구적 정신과 기법으로 보이는 것 속에서 동양적 세계관을 추출하여 문학세계의 핵심을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도서관모임 정책평가회

지난 도서관주간에 개최됐던 전국도서관인 크모임에 관한 문화부 정책평가회가 5월 4일 개최됐다.

문화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평가회에서 발표를 맡은 설의웅 문화부 도서출판과장은, 이번 전국도서관인 크모임이 정부의 도서관발전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발전을 위해 동행사의 연례화 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불량만화 추방 시민결의대회 거행

지난 11일 어린이대공원서...저질만화 수장식도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서울 YMCA, 서울YWCA 등 9개 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오후2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불량만화 추방 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정희경 계원예고교장은 '청소년과 만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불량저질만화 고발운동 전개 ▲불법복사만화 제작판매행위 중지 촉구 ▲행정사법기관의 규제를 촉구하는 추방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질만화 1천여권을 물속에 넣어 폐기하는 수장식과 함께 신문수 이정문 윤승운 황미나씨 등 인기만화가의 사인회와 작은별 가족의 건전가요 연주도 있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보이斯卡우트연맹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산에서 人生과 思想과 歷史를 배운다

■애장본

제7급 기존의 등반 난이도 체계에서 7급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매스너의 인간관계에의 도전 (라인홀트 매스너 저 / 값 8,000원)

검은 고독 흰 고독 낭가 파르바트를 단독 도전한 라인홀트 매스너의 행동기록 (라인홀트 매스너 저 / 값 8,000원)

죽음의 지대 극한 상황에서 등산가들이 체험하는 죽음의 문제를 파헤친 작품 (라인홀트 매스너 저 / 값 6,000원)

별빛과 폭풍설 알프스 6대 북벽을 오르면서 산과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결합해 나아가는 알피니즘 (가스통 레피우 저 / 값 6,000원)

알프스 등반기 마태온 초등정의 영예를 위해 일곱번이나 시도 하며 겪어오만 했던 고난을 생생하게 기록 (에드워드 워퍼 저 / 값 8,000원)

K2 죽음을 부르는 산 86한국K2원정대를 이끈 김병준 대장의 원정기록, 출국서부터 K2봉 정상에 서기까지 (김병준 저 / 값 8,000원)

■매뉴얼

써바이벌 매뉴얼 인간이 문명없는 자연속에서 생태계 조직을 이용,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기술 (찰스니버스 테일러 저 / 값 3,000원)

현대 등반 기술 저자가 젊은 나이로 일찌기 요세미티에 투신 하여 얻은 체험을 토대로 쓴 암·빙벽기술 (주영 저 / 값 3,500원)

록 클라이밍 테크닉 암벽 등반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초보클라이머를 위한 암벽가이드서 (스티브 매시론 저 / 값 4,000원)

오리엔티어링 입문 지도와 콤팩스 만으로 목표를 정확히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의 모든 것 소개 (한국등산연구소 편역 / 값 4,500원)

등산 용어 수첩 현재 등산에 쓰이고 있는 900여 개의 등산 용어를 쉽게 풀이한 책 (김성진 편저 / 값 4,000원)

등산 수첩 등산시 호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등산인을 위한 포켓등산백과 (허정성 편저 / 값 2,500원)

평화출판사

110-220 종로구 팔판동 150번지
전화 734-3341~3 팩시밀리 739-2129

■가이드

한국100명산, 한국200명산 정확한 코스별 산행거리와 소요시간, 교통·숙식, 각 코스 안내설명 등 (인경호 저 / 값 4,500원)

222 山行記 등산이라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명산 222개를 소개한 지도중심의 가이드 북 (김영수 저 / 값 15,000원)

네팔 트레킹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히말라야의 대자연을 접할 수 있는 트레킹에 대한 최신정보 수록 (토루나카노 저 / 값 20,000원)

■대형사진집

네팔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의 원색화화 산악사진집으로 7개국 동시 출간 (시라하타 시로우 저 / 값 140,000원)

알프스 유럽 알프스의 웅대한 암벽과 빙하의 세계를 촬영한 원색화화 산악사진집, 7개국 동시 출간 (시라하타 시로우 저 / 값 140,000원)